안산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창단

안산 졸업 후 입단·김성은 초대 감독 선임 … 선수 3·감독 1명
11월 20일 창단식 …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성공 개최 앞장

광주은행이 '한국 양궁 간판' 안산을 주축으로 한 여자 양궁단을 창단한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을 제외하고 기업이 양궁팀을 창단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은행은 창립 54주년을 맞는 오는 11월20일 여자 실업 양궁단을 창단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초대 감독 및 창단 실무 총괄 책임자로는 김성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팀 감독이 선임됐다.

김 감독은 기보배·최미선·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명장이다.

광주은행은 광주여대 출신 금메달 리스트 등 선수 3명과 감독 1명 등 총 4명으로 팀을 꾸릴 계획이다.

현재 광주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산(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3년)이 내년 말 졸업을 앞두고 광주은행 유니폼을 입는다.

안산은 지난해 7월 '2020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세계적인 스타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2022 양궁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문산초교와 광주체육중·고를 거쳐 현재 광주여대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 10월 광주은행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광주은행 양궁단은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한다. 선수 구성에 따라 숙소 확보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양궁단은 창단 3년 이내 세계선수권과 국내 외 각종 대회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앞두고 양궁 저변확대와 열기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스타들을 영입·육성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여자 양궁단 창단을 위한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며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은행장은 "여자 양궁단 창단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중심지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또한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고장 출신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다른 지역에 보내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아울러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이라는 경영철학을 실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종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최근 김성은(오른쪽) 광주은행 여자 실업 양궁단 초대 감독과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 초청해 팀 창단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이어 "여자 양궁단 창단으로 지역 학교팀과 실업팀이 선수를 연계·육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편, 양궁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확산 등 지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022 몽골 인터내셔널 챌린지 혼합복식에서 최현범이 우승을 차지하며 배드민턴 선수단으로서는 팀 창단 이후 국제대회 첫 우승을 일궈냈다. 광주은행은 유능한 선수 영입을 통해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국내 최고의 배드민턴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대회 운영자금 관리와 참가 선수단 및 국내외 관람객을 위한 환전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천의 악몽' 광주FC, 12경기만에 패배

K리그2 36라운드 원정 1-2
3일 홈에서 김포 상대 1위 굳히기

"길을 걷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일어서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우승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던 광주FC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광주는 지난 3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전반 44분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부천 박창준이 오른쪽에서 크로스한 공을 골대 왼쪽에 있던 오재혁이 머리로 터치했다. 골키퍼 김경민이 1차 방어했지만 이시헌이 떨어진 공을 오른발로 밀어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후반 7분 광주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헤이스가 주인공이었다.

박한빈이 페널티 박스 오른쪽 구석에서 뒤로 공을 보냈고 헤이스가 살짝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다. 바운드된 공이 골키퍼를 지나 부천 골대를 갈랐다. 헤이스의 12호골.

하지만 후반 23분 다시 광주 골대가 열렸다.

김호남이 오른쪽에서 문전에 있던 한지호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공이 제대로 맞지 못하고 뒤로 흘렀지만 이시헌이 공을 잡아 오른발 슈팅으로 광주 골대 왼쪽 하단 구석을 뚫었다.

광주는 이후 총력전에 나섰지만, 추가골에 실패하면서 1-2로 경기를 마감했다. 12경기 만에 기록된 광주의 패배였다.

광주는 시즌 초반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린 뒤 6월 26일 23라운드 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1-4패를 기록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부천과의 25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승리로 승점 사냥을 재개한 광주는 35라운드 부산전 1-0 승리까지 11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었다.

하지만 '부천 약세' 속에 광주가 다시 쓴 패배를 안았다.

광주는 올 시즌 20승 9무 4패(승점 69)를 기록하고 있다. 부천전 패배로 부산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2위 안양(16승 11무 5패·승점 50)과 승점 10점 차로 좁혀졌지만 1위 자리는 굳건하다.

광주FC의 헤이스(가운데)가 지난 30일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12호골을 기록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올 시즌 광주가 빈손으로 돌아선 경기는 4번 밖에 없다. FA컵 경기 포함하면서 광주는 올 시즌 5번만 졌다. 하지만 이 중 3패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기록됐다.

신생팀 김포와의 2022시즌 개막전에서 1-2로 졌던 광주는 3월 20일 부천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2패째를 기록했다.

이 패배 이후 6월 26일 경남전까지 광주는 15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다. 하지만 중간에 패배의 아픔을 겪었다.

광주는 K리그1에서 잘 나가던 인천을 상대로 FA컵 32강전에서 6-1 대승을 거뒀지만, 부천과 치른 16강전에서 1-2로 지면서 FA컵 도전을 멈춰야 했다.

광주가 이번 원정에서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하면서 부천은 '악몽의 땅'이 되고 말았다.

12경기 만에 패배를 남긴 광주 이정효 감독은 "평일 원정, 어려운 경기였다. 선수들이 실점을 했지만 끝까지 동점을 위해 달렸다. 패배를 했지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함께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하다. 길을 걷다 넘어졌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일어서서 홈경기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6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시즌 첫 패를 안겨줬던 김포를 상대로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세계 랭킹 2위 츠베레프 한국 온다

코리아오픈 24일부터 열려
랭킹 톱 10 선수 3명 우승 도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랭킹 2위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 등 세계적인 강자들이 9월에 국내 팬들 앞에서 실력을 겨룬다.

코리아오픈테니스조직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리는 2022 ATP 코리아오픈 참가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재 랭킹 톱 10에 드는 선수 중 3명이나 코리아오픈 우승에 도전한다.

1번 시드로 나서는 츠베레프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통산 19승으로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ATP 파이널스에서 우승했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식 금메달을 따냈다.

7위 카스페르 루드(노르웨이)는 올 시즌 3승을 달성하고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인다.

9위 캐머런 노리는 영국 테니스의 새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다. 기복 없는 플레이가 강점인 노리는 올해 2승을 포함해 통산 4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현역 미국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12위 테일러 프리츠, 역동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인 데니스 샤포발로프(21위·캐나다), 지난 신시내티 마스터스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를 꺾고 우승하며 세계랭킹 152위에서 29위로 급상승한 보르나 초리치(크로아티아) 등이 출전한다.

작년 아스타나오픈에서 생애 첫 ATP 투어 우승을 차지한 권순우(81위·당진시청)는 국내 선수로 유일하게 참가한다.

본선 자동진출자 19명 중 투어 대회 결승 진출 경험이 있는 선수는 18명이며, 그중 14명은 1회 이상 우승을 경험했다.

투어 결승 진출 경험이 없는 선수는 마르코스 기론(56위·미국) 하나뿐이다. 누가 결승에 올라도 이상한 것이 없는 라인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츠베레프, 초리치, 노리, 프리츠는 마스터스 1000 시리즈 우승자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랭킹 포인트 250점과 함께 우승 상금으로 17만35달러(약 2억3000만원)를 받는다.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한 선수는 1만1990달러(약 1600만원)를 받는다.

총상금은 128만달러(약 17억3000만원)이다.

ATP 코리아오픈에 앞서 17일부터 25일까지는 국내 유일의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인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이 열려 테니스 팬들은 2주 연속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신성' 안토니 영입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아약스(네덜란드)의 '신성' 안토니(22)를 1억 유로(약 1351억8000만원)라는 기록적인 이적료를 내고 데려간다.

맨유는 지난 31일 측면 공격수 안토니 이적을 두고 아약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맨유와 안토니 사이의 계약서 내용도 확정됐다. 메디컬 테스트는 전날 마쳤다.

이적료는 9500만 유로에 옵션 500만 유로로 총액이 1억 유로에 달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상 4위에 해당하는 이적료다.

안토니보다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는 폴 포그바(유벤투스)와 로멜루 루카쿠(인터밀란), 잭 그릴리시(맨체스터 시티) 등이다.

맨유만 놓고 보면 폴 포그바에 이어 안토니가 2위다. 포그바는 2016년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이적하면서 8900만 파운드(약 1405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한 바 있다. 포그바는 다시 유벤투스로 복귀한 상태다. /연합뉴스